

나주 초·중학생 학업성취도 '눈에 띄네'

'보통이상' 늘고 기초학력 미달 줄어

방과후 보충·심화학습 예산지원 효과

나주지역 초·중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나주시의 방과후 보충·심화학습 등 학력향상에 대한 예산지원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나주시가 학교정보공시 포털 사이트 '학교알리미'에 게재된 교육정보서비스 가운데 지난해 각 학교별 학생들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를 중

합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와 수학, 영어 과목에 대한 초·중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향상됐다.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한 20개 초등학교 학생 785명과 15개 중학교 학생 771명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의 향상이 두드러졌다.

초등학교의 과목별 수준 가운데

'보통 이상'은 수학의 경우 581명(74.0%)으로 전년도 518명(67.9%)에 비해 6.1%, 영어는 694명(88.4%)으로 전년도 631명(82.8%)에 비해 6%, 국어는 640명(81.5%)으로 전년도 595명(78.1%)에 비해 3.4% 포인트씩 각각 증가한 반면 기초학력 미달은 줄었다.

중학교의 과목별 수준 가운데 '보통 이상'은 수학의 경우 392명(50.8%)으로 전년도 346명(44.8%)에 비해 6%, 영어는 444명(57.6%)으로 전년도 399명(51.7%)에 비해 5.9%, 국어는 591명(76.7%)으로 전년도 563명(73.0%)에 비해 3.7% 포인트씩 높아졌다. 반면 미달학생은

감소했다.

사회과목도 '보통 이상'이 457명(59.3%)으로 전년도 425명(55.0%)에 비해 4.9% 포인트 높아졌다.

그러나 과학과목은 345명(44.7%)으로 전년도 390명(50.5%)에 비해 5.8% 포인트 낮아져 아쉬움을 남겼다.

이는 나주시가 교육관련 경비 지원액을 2011년도 25억7000여 만원에서 지난해 51억9000여 만원으로 대폭 늘린데 이어, 올해도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80억원으로 늘린데 따른 것이다.

특히 증액한 예산 대부분을 초등학교의 보충학습과 특기적성, 중·

고등학교의 보충 심화학습 등 학력향상 프로그램에 집중한 결과 학력증진 효과를 거둔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나주시 교육지원과 관계자는 "지난해 32명이었던 수도권 주요대학 합격자가 올해 46명으로 44%나 대폭 증가하면서 '실력 나주'의 위상을 확립하는 실적을 거뒀다."

이번 초·중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분석을 계기로 학력향상 프로그램 중심의 교육지원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나주=손영희기자 yacson@



다문화가정 전통놀이 장흥군 회진면 덕산리 다목적회관에서 최근 200여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신랑 박공식(42)군과 베트남인 쓰영티베(23)양의 전통혼례식이 열렸다. 혼례식은 기러기를 드리는 전안례, 신랑과 신부가 맞닿하는 교배례, 신부 가마탑승, 부모에 올리는 폐백,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장흥군 제공)

중 관광객 장흥 찾아

우드랜드, 무산김 '팅 하오'

오는 7월부터 장흥군과 중국간에 본격적인 문화·관광교류에 앞서 시범 관광객이 정남진 장흥을 찾아 눈길을 모으고 있다.

1박2일 일정으로 장흥을 찾은 중국 관광객단 70여명은 16일 억불산 편백숲 '우드랜드'와 토요시장을 찾아 무산김 등을 구입하고 핫게나무 원료제품으로 인기를 누리는 'PN케이' 공장을 방문했다.

장흥을 찾은 시범 방문단은 중국 선양에 거주하는 한국인 상인회(회장 이상희)를 비롯 재선양 대한체육회 임원, 요녕성 조선족 경제문화교류협회(이사장 장현환) 임원과 재단법인 관설부설 국제문화원(원장 윤준호) 임원들로 구성됐다.

한편 장흥군은 지난해 11월에 중국 하이룽장성(흑룡강성)과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정을 체결하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16일 장흥을 찾은 중국 관광객들이 토요시장 내 농수산물관매장에서 받은 표정으로 무산김 등 장흥지역 특산물을 구입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강진 떡방앗간 시설개선 지원으로 살린다

6곳 선정 업소당 최대 500만원씩

강진군은 신규 시책사업으로 관내 떡방앗간의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떡방앗간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및 안전성 등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관내 떡방앗간은 영세 자영업이라 시설개선 의지는 있지만 재정적 부담이 커 쉽게 개보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진군은 식품 조리 및 취급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려는 업소 중 총 공사비의 50%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6곳을 선정해 군비 3000만원을 투입해 업소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설개선 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군청 주민복지과 위생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은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 노후 정도가 심각하고 시설개선 규모가 큰 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떡방앗간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 추진으로 식품취급 시설이 한층 더 위생적으로 개선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올해부터 영세 업소들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자금 지원에 나서는 등 소규모 업소 개선 지원에 힘쓰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il@

전북



임실군 '찾아가는 캐리커처 이발관' 운영

덕치 노인안방병원서

임실군이 덕치 노인 안방병원에서 '찾아가는 캐리커처 이발관'을 운영 (사진)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캐리커처 이발관'은 이발봉사와 만화가 캐리커처 프로그램을 접목해 노인에게 사회·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18일부터 추진해온 이 사업은 문화연구회 '창'과 임실군이 한국 만화가협회·카툰협회의 전문가와 기

획해 실시하는 국내 유일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이다.

경제·사회적 여건 때문인 문화적으로 소외받는 노인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실군 문화예술 김한식 담당은 "노인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캐리커처라는 문화장르를 접목해 선물로 제공해 보니 만족도가 높아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임실=이동희기자 dhlee@

부안 '곰섬' 관광명소로 탈바꿈

郡, 연말까지 7억 들여 체련공원 조성키로

정상에 팔각정자... 서해낙조·곰소염전 '한눈에'

부안의 '곰섬'이 관광명소로 탈바꿈한다.

부안군은 농어촌생활환경경비사업의 일환으로 진서면에 위치한 곰섬 7500㎡에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총 7억5700만원을 들여 체련공원을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토지매입 및 관련법에 따른 협의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로 공원부지 조성을 비롯해 다목적 운동시설 설치,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곰섬의 정상부에는 편안하게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팔각정자를 조성한다. 이곳에서는 변산 8경인 웅연조대(雄淵釣臺), 서해낙조(西海落照)와 관음봉, 곰소염전 등을 한 눈에 살필 수 있다.

곰섬체련공원이 조성되면 쾌적한 생활환경 증진 및 생활수준을 높이고 주변 특유의 자연·문화·사회자원과 어우러진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이라는 게 부안군의 설명이다. 나아가 침체되어 가고 있는 곰소경제에 활력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안=정재용기자 jiy0681@

제공하고 힐링공간으로서 관광객 유치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곰섬은 그동안 폐 석산부지로 방치돼 왔지만 체련공원 조성으로 새로운 관광명소로 재탄생하게 된다"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관광 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정재용기자 jiy0681@

단신

전주, 모악산 순환 셔틀버스 주말 운행

전주시~완주군~김제시에 걸쳐 있는 도립공원 모악산을 순환하는 셔틀형 시내버스가 주말마다 운행된다.

전주시는 모악산 주변의 주차난을 덜고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 25일부터 순환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구이 상학~평화동 사거리~삼천동 농수산시장~완산체련공원~중

인리를 거치는 노선(93번)이다. 6대의 버스가 15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요금은 전주~완주지역 요금단일화에 따라 1100원이다.

주말에 모악산을 찾는 등산객은 하루 평균 5000여명, 이들이 타고 오는 차량은 1500여대에 이른다. /전주=박기섭기자 parkks@

익산 여산~완주 화산 지방도 20일 개통

익산시 여산면에서 완주군 화산면을 잇는 지방도(2차선·3.65km)가 오는 20일 전면 개통된다. 지난 2008년 12월 착공한 지 4년 5개월여이다.

169억원이 투입된 이 도로가 완공됨에 따라 익산 여산에서 곧바로 완주 화산으로 넘어갈 수 있어 주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많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도로는 그동안 비포장인데다 도로 폭이 좁아 시내버스 등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겨울철 눈이 많이 오거나 결빙되면 인근 지역 주민들 1시간 정도 더 걸리는 우회도로를 이용해 나들이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익산=박기섭기자 parkks@

고창 구시포 해수욕장 대대적 정비

계속적인 해안침식으로 백사장이 유실될 위기에 놓인 고창 구시포 해수욕장에서 대대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전북도는 오는 2015년까지 155억원을 투입, 구시포 해수욕장 일대에서 재해 완충지대 조성과 호안보수 및 보강, 오토캠핑장 및 주차장 설

치 공사를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4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쳤다. 도는 오는 7월 해변연결도로 건설과 호안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창=윤영희기자 cy0370@

남원시, 사업용 화물차 운송사업자 확대

남원시는 택배분야 집화·배송만을 담당할 1.5t 미만 사업용 화물자동차 41대를 신규 허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10년간 택배시장의 물동량과 매출액이 급격한 성장함에도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구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신규허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동안 자가용 화

물자동차로 운행하던 택배기사들에게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의의가 있다.

대상자는 근무경력, 교통사고 경력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사전 심사를 거쳐 선정된 41명으로 30일까지 시청 교통과에 신규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완주에 '술 박물관' 짓는다

204억 투입 3층 규모

우리 술의 역사와 관련 유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술 박물관'이 완주군에 들어선다.

완주군은 16일 구이면 덕천리 현지에서 기공식을 하고 내년까지 총 204억원을 들여 6만여㎡에 3층 규모의 박물관을 완공키로 했다. 술 박물관에는 소줏고리, 누룩틀, 술甬, 술 항아리 등 전통주와 관련된 유물과 주류업체별 술甬, 각종 상표 등이 전시된다.

술의 종류, 주도(酒道)에 관한 고서, 옛 주류제조 면허증, 주류경연대회 상장 등의 자료 5만여 점도 갖춘다.

이와 함께 전통주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장이 들어서고 관광객에게 전통주 제조법도 교육한다.

완주군은 이를 인근의 모악산, 전북도립미술관 등과 연계해 관광코스로 개발할 방침이다. /완주=박기섭기자 parkks@

각종 상표 등이 전시된다.

술의 종류, 주도(酒道)에 관한 고서, 옛 주류제조 면허증, 주류경연대회 상장 등의 자료 5만여 점도 갖춘다.

이와 함께 전통주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장이 들어서고 관광객에게 전통주 제조법도 교육한다.

완주군은 이를 인근의 모악산, 전북도립미술관 등과 연계해 관광코스로 개발할 방침이다. /완주=박기섭기자 parkks@



'1일 명예법관' 체험 시법행정과 재판사무를 지운하는 전주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6일 '1일 명예법관' 체험을 하고 있다. 시민사법 위원들은 다음달 12일까지 재판관을 방청하고 진행을 체험하게 된다. /연합뉴스